

## 進化上個我的 地位

(單子的 個我主義)(三)

韓稚振

그에 對한 바른 對答이라 할 것은 第二 質問을 解하는데 잇스니, 즉 外界의 影響으로써 曲折되었다는 事實은 돌이켜 그 眞正을 詳究하여 보면 外界의 影響을 맞지 안 헛기 때문에, 曲線이 된 것이라 하게 된다. 眞正말이지 外界의 影響을 바뎠다 하면 그 芽가 曲折되지말고 片石을 눌러 놀 그새부터 生長이 停止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不然하다. 停止는 姑捨하고 片石을 쭈르고 나오려한 奮鬪와 同時에 四方으로 延長하여 曲線을 作하면서도 發生하는 것을 보니 外界의 影響이라고는 一分어치도 업고, 모다 草芽그 自體가 自發的으로 터져 나아온 事實뿐이 分明하여야진다. 勿論 우리는 主張하되 萬一 片石을 發生하는 芽 그것 우에다가 눌러 노치 아니 하얏스면 그 芽는 曲折되지 안코 곳 장잘 發生하얏슬것이어늘 曲折한 것을 보니 눌러는 片石의 影響을 分明히 바든 연고 로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말한 것과 가티 정말 바랏다 하면 曲折도 업시 芽는 發生하기를 停止하여서야만 事實이 되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 어떤 이는 말하되 芽의 長成方面만 外界가 影響을 주고, 그 方向으로 延長하는 力은 草芽自體라 할는지 不知하나 그러나 吾人은 그것까지 否認하니니, 그 理由인즉 石片이란 것이 어찌케 芽의 曲折方向을 指示할가하는 不可思議한 點이 잇기 때문이다. 方向의 指示나 그리로 延長하게 하는 것이나, 모다 芽그 自體가 하는 일이오. 外界의 影響은 도모지 업다 한다.

이제 그 發芽의 曲線方向에 對하여 좀더 仔細히 說明할 必要가 있다. 우리가 發芽하는 草葉을 片石으로 壓迫하면 曲折되어 發生한다 하는 判斷을 하게 됨은 우리는 草芽가 壓石이 업스면 고추 發生하는것을(習慣的으로)늘 본 것을 標準하여가지고, 判定하기 때문에 하나는 自然的이오. 다른 하나는 不自然的이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추 發芽하는 것이 草木의 自然的 發生方向이오. 曲折하게 되는 것은 不自然的 方向이니, 畢竟 旣 外界의 影響을

바다 그리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如此한 判斷은 사람의 固有한 偏見 卽 恒常 習慣的으로 본 것을 疑心업는 眞理라하는 偏□이나 하노혼幻想이다. 우리가 萬一 草木의 發芽가 恒常曲折로 成長하는 것을 보기로 習慣하였든들 發芽의 直成을 어떤한 外界의 影響으로 不自然하게 되었다 할는지 모르겠다. 그런즉 草木의 芽가 直線으로 長하든지 曲線으로 長하든지 거기에 對한 眞理를 무삼 外界影響에 依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草木自體가 이러케도 자라고 저러케도 發生하는 活動을 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다시 例하여 말하면 林檎이 落下하는 것은 『뉴-톤』의 萬有引力으로 因한것도 아니오. 그 林檎이 怪物처럼 自體가 스스로 落下하는것도 아니오. 또한 林檎樹만이 落下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 林檎果樹와 萬有의 周圍卽空間이 林檎으로 하여금 自然히 落下하게 하였다 한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屈線한 空間에 處한 林檎은 自然히 落下하게 되었다 하나니, 마치 우리가 速度로 走하는 汽車에서 不動하는 地上이라는 空間에 落下할새에 別數업시 주저 안게 되는 것과 가튼 것이다. 이와 가티 草芽가 直發하는것이나, 曲成하는것이나 다가티 이러한 空間에서는 이러케 長하고 저러한 空間에서는 저러케 生하는 것 뿐이오. 무삼 旣 外界의 무엇 侵入하여 影響을 주는것은 아니다. 이럼으로 芽의 發生方向이 直線的이든지 曲線的이든지 모다 自然인 同時에 不自然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다. 우리가 直線的 方向만 보고 標準하여 曲線的 方向을 判斷할 새에는 前者는 自然的이 되고 後者는 不自然的이 될지며, 그와 반대로 보면 그와 반대로 될 것이다. 以上の 論意가 卽 相對性原理와 符合되는 眞理이었다.

이럼으로 個我라는것은 自發的 獨尊的인 것이다. 무삼 外界의 影響을 바다 그 個我的 特性을 決定한다는 判斷은 眞理에서 어그러질 썩아니라 돌이어 萬事에 對한 解決을 複雜케만하는 原因이 된다. 以上에 列舉한 草芽나 사람이나 다가티 外界의 影響을 交換的으로 맞지 안는다는 眞理는 一般이다.

우리 普通사람은 以上の 論意를 읽고 驚異하여 不正타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普通人이 要求하는것을 다 認定하고 解釋한것이 以上の 論意가 된 줄안다. 普通人은 外界의 影響을 重要視하는것은 事實이다. 이래서 遊覽가튼 것이나, 教育가튼것을 하여서 自己의 見識을 넓히 하라는 것이다. 吾人도 遊覽이나 教育을 否認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遊覽이나 教育을 맞본다고 그저 變動的으로 見識을 얻는것이 아니오. 各各 스스로가 奮鬪理解하는 者라야만 理解할 수 있다는 것이오. 外界는 受動的으로 見識을 注入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萬一 各個我的 勞力으로써 見識을 어듬이 업고, 外界가 注入하여 얻는다 하면 何故로 各個人이 同一한 遊覽과 教育을 受하였다 하면서도 不一한 意見과 理解를 가지게 되는가. 이 不一한 解釋과 意見을 보면 各各

스스로가 勞力하여 自覺하는것이 分明하다. 이래서 理解나 自覺은 다 消化作用이니, 消化는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化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 내가 말하고 아는 것이나 事業着手나 무엇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나에게 關한것은 나에게 屬한 것이오. 나의 外의 것은 아닌 것이다. 個我는 이러케 絶對的 獨存 自營인 것이다.